전법 일기

법우들 무한 잠재력 불성은 이미 싹텄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아리가 반백 년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단순히 취미가 아닌 삶의 나침반으로써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정적으로 법우들의 인생과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동문 법우 중에 비구니스님이 되신 분도 있다. 그만큼 성신여대 법우들은 동아리 활동에 진심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동아리 활동에서 법회 시간은 매우 짧다. 일주일에 한 번, 약 1시간의 법회가 전부다. 그나마도 학기 중에만 하고, 시험 기간은 하지 않다 보니 1년에 5개월 정도 밖에 하지 못한다. 1시간 법회 동안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의 간단한 예경과 5~10분 정도의 명상을 하고 나면 불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법문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40분도 채 안 된다. 그렇다보니 법우들이 불교를 이해하기 참 힘들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내 착각이었다. 법우들의 가슴 속엔 이미 불성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작년에 법우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를 주제로 작품전시회를 했다. 전 지도법사이신 자우 스님께서 법사를 그만두시면서 학생회장과 함께 당신 절인 비로자나국제선원 1층 카페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주시기로 하셨다. 어떤 주제로 할지 회의를 거쳐 스스로 정하고 작품을 만들고 배접해 표구까지 직접하고, 카페에 전시하는 것도 법우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손수 했다.

드디어 전시회 첫날, 동아리 선배님들과 전 지도법사 자우 스님을 모시고 작품설명회를 했다. 신문을 보시고 동덕여대 지도법사 청빈 스님과 불교동아리 학생들도 축하 겸 견학을 오셨다. 본인이 만든 작품 앞에서 설명하는데 한 작품, 한 작품마다 탄성이 나왔다. 그 속에 그렇게 깊은 사유와 바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적잖이 놀랐다.

원주연 〈해일(海日)〉 - 제 법명 해일(海日)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같은 지혜'입니다. 이 이름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윤회의 한 줄기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실상을 보고 양극단을 걷지 않고 중도를 걸으며, 현재를 사는 지혜를 배워 지금 현재를 살려는 의미를 담은 저의 인생 네 컷입니다.

이연서 〈H〉 - 우리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포용하는 윤회의 신비로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는 윤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며, 인생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로, 감정, 경험, 그리고 인생의 여러면을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유은채 〈Hug Me〉 - 나는 또, 가시가 있는 존재가 되겠지. 그럼에도 누군가는 끌어 안아주길 바란다.

지면이 짧아 다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 작품전시회를 계기로 대학생 법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 이들은 이미 훌륭하다. 이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불성을 잘 발현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도반이고 싶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찾자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 오나 보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 속에는 이미 봄기운이 스며들었다. 황구지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오리 떼들의 날갯짓이 경쾌하다. 재잘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늘어선 벚꽃나무들도 함빡 꽃을 터뜨리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후에는 황구지천의 벚꽃 길을 걷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시골에서 벚꽃 길 근처에 사는 호사를 매일 누리는 것이다.

중풍으로 반신을 잃은 할머니가 절뚝절뚝 홀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노부부가 웬만큼 궂은 날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벚꽃 길을 산책한 지는 오래되었다. 할아버지 혼자 걸어도 힘든 산책길이다. 흙바닥이 조금이라도 고르지 못하면 휠체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도와주려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후 서로 만나면 눈인사만 나누고 제 길을 걸었다.

그런 어느 늦가을,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지 않고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다. 흔들흔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 나는 일부러 눈길을 돌리곤 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나는 뜸하게 벚꽃 길을 찾았는데 할머니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었나 보다. 드디어 벚꽃이 움트는 계절에 할머니는 휠체어도 할아버지도 없이 홀로 걷고 있다. 각고의 인내로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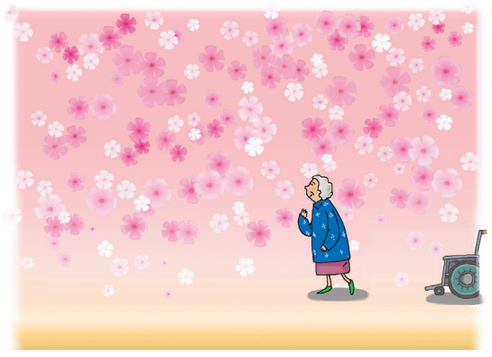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첫걸음을 뗐다. 그동안 마비되었던 신경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온 천하에 봄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제부터 남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걷는다. 그녀는 중풍 걸리기 이전에도 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걷는 줄도 모르고 걸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걷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걷는 것이다. 할머니의 첫걸음은 옛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 시대의 시작이다.

그냥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없다. 그저 유행에 휩쓸려 이웃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참 나가 없다. 내 안에 불성(佛性)이 있는 줄 모르고 밖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걸어가는 삶은 죽은 삶이다. 발을 잘름거려도 내 힘으로 걷는 것이 본래적인 참 자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을 도(道)라고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사람이 못 된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을 의지해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부처가 되기까지, 할머니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기를 수 없이, 무릎에 멍이 들고 발꿈치에 군살이 박혀도 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다.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사람이 되는 때이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꽃을 보기 위하여 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봄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내 안에는 이미 진리의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때, 봄이 활짝 꽃눈을 터뜨린다.

〈작가〉

기자칼럼

중앙승가대, 위기에도 길은 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양성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중앙승가대학. 전통강원교육을 넘어 새로운 승가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1979년 3월 돈암동 보현사에서 문을 연 중앙승가대학은 종단과 종도들의 응원 속에 현대 승가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승가대학은 종단, 교수, 학생, 동문들이 합심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사회복지학 등 현대 사회학문을 도입, 불교 복지인재를 양성했고 불교 사회화에도 앞장섰다. 현대식 교육을 받은 중앙승가대학 출신 스님들이 전국 사찰에서 소임을 맡으면서 종무행정 수준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중앙승가대학 앞에 놓인 과제는 예사롭지 않다. 올해 입학생은 박사 9명, 석사 16명, 학부 19명 등 총 44명. 지난해 박사 17명, 석사 22명, 학부 22명 등 총 61명이 입학했으니 감소폭도 커졌다. 물론, 연간 전체 출가자 수에 비춰보면 입학생 수는 적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옛 명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상이 저출산 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면서 출가자도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길은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월우 스님은 현대불교 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언급했다. 출가 체험과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공간 제공 등이 그 예다. 물론 승가대학이라는 특수성과 원칙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동국대와의 통폐합까지 논의됐던 중앙승가대는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통폐합보다는 3월까지 자체적인 현실적 자구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기본교육기관 수용과 행자 교육원 설치, 학과 개설 등 완전히 탈바꿈할 수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 한국불교 지도자 양성의 요람 중앙승가대학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면 위기에도 길은 있을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움직이지 않는 팔보다 고향가족 먼저 떠올라"

스리랑카 드라하 씨, 골절 · 근육파열 부상
치료비 · 고향 부모님 생계 걱정에 눈물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 해외 지원 사업